

국제금융시장 11월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혜진 (ghjkim@kdb.co.kr)
 정대형 (wellbaby@kdb.co.kr)

- ◆ **(환율)** 달러화는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진행 과정에서 등락 이후 약세를 보였으며, 원화는 달러화 약세,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강세가 심화
- ◆ **(금리, 주가)** 미 국채 등 장기금리는 대체로 전월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선진국 증시는 예방률 높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의 호재로 전월 대비 일제히 상승

□ **(환율) 달러화 가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을 보인 후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확실해짐에 따라 약세가 본격화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여 1,100원선까지 진입**

- 달러 인덱스*는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개표 상황에 따라 등락하며 변동성을 보이다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진 후 본격적으로 하락
 - * 메이저 6개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대비 달러화 가치
 - 달러 인덱스는 개표 초기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우세를 보여 상승출발 하였으나, 우편투표 개표 후 바이든 후보가 역전하자 하락세로 전환
 - 이후 백신 관련 소식, 미국의 정권이양 불확실성 완화, 엘런 전 연준의장의 재무장관 내정 등으로 추가 하락하여 '18.4월 이후 처음으로 월중 91pt대 기록
- 백신 관련 소식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 엔화에 대한 약세압력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엔/달러 환율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
- 유로화는 전월 하락에 대한 되돌림, 바이든 후보 당선에 따른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강세 시현

주요 선진국 통화 환율 추이

	'18년말	'19년말	'20.10월말	'20.11월말	전월대비
달러 인덱스	96.140	96.479	94.022	92.007	△2.14%
엔/달러	109.61	108.66	104.64	104.41	△0.22%
달러/유로	1.1456	1.1219	1.1647	1.1929	+2.42%

자료 : 연합인포맥스

- 원/달러 환율은 가파른 하락에 대한 당국의 경계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 순매입 등의 영향으로 1,100원선까지 하락
 - 월초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우편투표

- 개표 이후 바이든 후보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하락 반전, 1,100원대 진입
- 환율의 가파른 하락에 대하여 당국에서 수차례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외국인 주식 순매수**,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

* 기재부는 16일 "최근의 환율 변동이 과도한 수준"이며 "인위적인 변동 확대 유도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은 총재 역시 26일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
 ** 11월 외국인은 4개월만에 주식 순매수(4.96조원)로 전환하였으며 코스피는 사상최고치를 연이어 갱신

원화 환율 추이

	'18년말	'19년말	'20.10월말	'20.11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1,115.7	1,156.4	1,135.1	1,106.5	△2.52%
원/엔	1,017.9	1,064.2	1,084.3	1,059.6	△2.28%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금리) 美 국채 10년물 금리는 대체로 전월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미국 화이자 등의 고효능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라 월중 급등*하기도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 불확실성이 추세적인 상승을 제한

* 10년 만기 美 국채 금리 : 0.7629(5일) → 0.9753(11일)

- 유효율이 높은 백신 출시 기대와 美 대선 결과 관련 불확실성 감소 등 금리 상승요인이 코로나19 경기회복에 대한 신중한 전망 등에 의해 제약

□ (주가) 선진국 증시는 호재 등장으로 전월 대비 현저한 상승세 시현

- 선진국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기대와 미국의 정권 이양 작업 개시에 따라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선을 돌파*하는 등 일제히 호조세

* 미국 다우지수는 24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30,046.24로 마감

- 특히, 유효율 9할 이상의 백신 개발 소식(9일)은 단기적으로 컨택트 가치주 가격의 급등*과 함께 언택트 기술주 가격의 급락**을 동시에 초래

* 다우지수 : 28,323.40(6일) → 29,420.92(10일) (+3.87%)

** 나스닥100 : 12,091.35(6일) → 11,624.29(10일) (△3.86%)

주요국 국채 금리 및 주가 추이

		'18년말	'19년말	'20.10월말	'20.11월말	전월대비
금리 (%)	미국채 10y	2.6842	1.9175	0.8737	0.8389	△3.48bp
	독일채 10y	0.2420	-0.1850	-0.6270	-0.5710	+5.60bp
	일본채 10y	0.0030	-0.0110	0.0420	0.0320	△1.00bp
주가 (pt)	다우존스	23,327.46	28,538.44	26,501.60	29,638.64	+11.84%
	유로 Stoxx 50	3,001.42	3,745.15	2,958.21	3,492.54	+18.06%
	Nikkei	20,014.77	23,656.62	22,977.13	26,433.62	+15.04%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시장 12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혜진 (ghjkim@kdb.co.kr)
 정대형 (wellbaby@kdb.co.kr)

- ◆ **(환율)** 달러화의 추가 약세 및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 전망
- ◆ **(금리, 주가)** 전반적인 시황은 코로나19 백신 보급 전망과 美 바이든 행정부 정권 인수의 진척 여하에 따라 상승세가 속도 조절을 받는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

□ **(환율)** 달러화 약세 심화 가능성이 있으며, 원/달러 환율도 추가 하락 가능

○ 달러화 : 추가 약세 가능

-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연준이 12월 FOMC에서 경기부양 의지를 재차 표명할 것으로 예상
 - 12.2일 발표된 베이지북*에 따르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중 4곳이 관할 지역의 경제성장이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고 평가
- * 연준이 1년에 8회 발표하는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경제현황을 평가하는 경기동향 보고서로 이번에 발표되는 보고서는 12월 FOMC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됨
- 또한, 엘런 전 연준의장이 바이든 정부의 신임 재무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에 대한 기대가 부각될 전망
 - 시장에서는 엘런 전 연준의장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연준은 정부의 확장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상용화 추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에 관한 새로운 소식에 따라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음

○ 엔화 : 보합세

- 약세요인과 강세요인이 병존하고 있어 전월과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할 전망
 - 백신 개발 관련 긍정적인 소식은 안전자산 선호 약화를 통하여 엔화에 대한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나 달러화의 약세는 엔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 유로화 : 추가 강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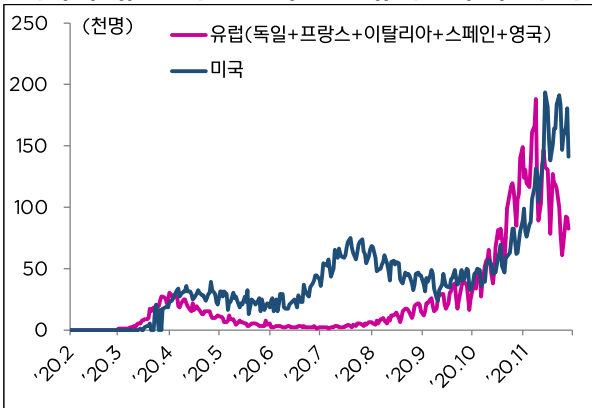
- ECB가 1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로 도입하는 경기부양 조치들이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지 못할 경우 유로화 추가 강세 가능

- 10월 회의에서 ECB가 다음 회의까지 추가 완화책을 강구할 것임을 예고하였기 때문에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가 일정부분 환율에 선반영되었다고 판단
- 한편, 브렉시트에 임박하여 진행중인 영국과 EU의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협상에서 여전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점은 유로화에 대한 불안요인

○ 원/달러 환율 : 추가 하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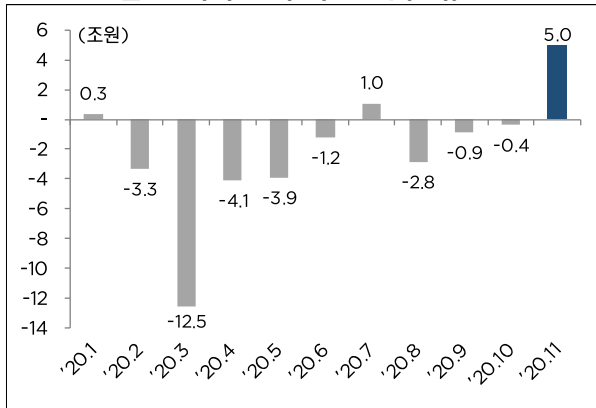
- 달러화 약세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원/달러 환율도 추가 하락 가능
- 다만, 최근 가파른 하락 속도에 대한 부담, 환율 하락에 대한 당국의 경계 등은 환율 하단을 제한하는 요인

미국과 유럽 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 추이



자료 : WHO

월별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금리, 주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전망과 추가부양책 논의 향배 등이 금리·주가에 영향 전망

○ 금리 : 낙관적 심리가 신중하게 발현될 가능성

- 백신 상용화 기대로 전반적인 상승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21.1.5일 예정인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전까지는 추가부양책 전망 관련 변동성 예상

○ 주가 : 위험자산 선호의 점진적 확산 전망

-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확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백신 상용화 일정과 美 정권 이양 진척이 가시화됨에 따라 조기 경제 정상화 기대로 인해 주식 선호 경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

(담당자 : 환율 - 김혜진, 금리·주가 - 정대형)